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공장 사수 투쟁 정당하다! 민주노조 파괴 중단하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7월 25일부터 직장폐쇄에 맞서서 공장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진정한 “공장의 주인”인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자신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공장을 사수하면서 불별 더위도 아랑곳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자동차 내 에어컨 등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내는 것에 저항해 온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거듭 벌여왔다. 2014년 말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사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주화를 확대하는 등 공격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특전사·경찰 출신자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 무자비한 폭력까지 휘두르며 복수노조 설립을 기도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7월 7일간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공급에 차질을 주며 1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또한 사측의 노조파괴를 위한 용역투입은 법정에서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 얼마 전 갑을그룹 부회장 박효상이 법정 구속 됐다.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들이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라며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 승리 후에 사측이 잔업과 특근을 통제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노동자의 한 자녀는 “저희 아빠 연봉이 9천7백만 원이라고요? 그럼 제가 알바를 안 했죠”라며 사측과 언론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진짜 귀족은 따로 있다. 갑을오토텍을 중심으로

갑을상사그룹은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늘리고 전체 그룹 매출을 2조원대로 키웠다. 노동자들을 쥐어짜내 배를 불러 온 것이다. 사측이 지난해부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무시하며 임단협 교섭을 해태하는 동안 경영진들의 연봉은 12억 원이나 늘었다.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그토록 아까워하는 사측은 ‘월 5백 10만원짜리’ 용역을 모집하면서 노조파괴에 혈안이 돼 있다. 이제 사측은 8월 1일부터 용역경비 인력을 공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중립” 운운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측의 비열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갑을오토텍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공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자동차 부품사 노조들에 대한 연이은 공격은 이 나라 핵심 산업인 금속부문에 서 임금과 노동 조건 후퇴를 더 손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과 노동개약에 불만을 느끼고 투쟁을 건설하려는 다른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투쟁을 고무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구조조정과 노동개약에 맞서 최근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특히 현대·기아차)가 연대투쟁에 나서서 승리를 앞당기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도 끝까지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7월 30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